



2026년 2월 8일 | 주현후제5주

자녀 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요한일서3:18)

아름다운주님의공동체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사랑과 나눔의 BCJC
균등과 균형의 교육가치를 추구하는 다림교육

기독교대한감리회 아름다운주님의교회 공동사역자 김영석 김진형 김효정 신주환 오미숙 이학재 천혜영 한창천

목장을 섬기는 목자 박정수 신주환 오세현 이상숙 최경찬

2026 아름다운주님의교회 주일공동체에배

여러분의 아즈카라는 무엇입니까?



BCJC 소식

환영합니다 | 강추위를 뚫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공동체와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함께 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오늘도 주님은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셔서 위로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공동체식사안내 | 오늘 공동체 식사는 에그목장에서 준비해 주십니다. 귀한 헌신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목장 가족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식탁을 사랑의 나눔이 있는 자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나눔 위에 성령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목장안내 | 청소년부 목장이 작년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도는 천혜영권사님이 헌신해 주시고 계십니다. 청소년 목장이 잘 진행되고 귀한 성장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변변한 모임 공간이 없어서 배회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축복의말씀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 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잠언서 11:24-25

아름다운어린이예배

매주일오전11시 | 교회학교실

목장모임

매주일오후1시 | 교회모임실

다림교육

매일 | 다림교육센터

매일묵상

매일오전5시

여러분의 아즈카라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3~6 어느 날 오후 세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네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옴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목장나눔

나눔1. 최근에 누군가에게 받은 아주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아,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느껴 감동했던 적이 있나요? 함께 나누며 마음을 열어볼까요?

(청소년용 나눔 : 너희는 요즘 관심있는 이성 친구들이 있니? 우리만 살짝 얘기해 볼까?^^ 그 친구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관심을 끌려고 한 행동들이 있을까? 뭐지? 너희들은 누군가에게 나를 기억하도록 하는 행동을 해 본 적이 있어?)

나눔2. ‘아즈카라’는 제사장이 곡식 중에서 ‘한 움큼’만 떼어 제단에 태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전체를 받으셨다는 의미였어요. 이 개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십일조나 헌금, 구제나 봉사, 또 주일 성수와 이 개념이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주일에배나 헌금이 어떤 마음이었나요?

(청소년용 나눔 : 설교에서 제사장이 곡식 전체가 아니라 ‘한 움큼’만 제단에 태웠는데, 하나님은 그걸로 전부를 받으셨대. 신기하지 않아?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양이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나눔3.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마 6:21)는 말씀처럼, 우리가 시간과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곧 우리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요즘 여러분의 시간과 돈은 주로 어디에 쓰이고 있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우선순위를 보여준다면,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가있는 걸까요?

(청소년용 나눔 :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보시고 그를 기억하셨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보다,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진심’을 보셔. 나는 교회에 오거나 예배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진심이 담겨 있니? 아니면 그냥 몸만 와 있는 걸까?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일주일 중에 하루, 몇 시간, 주일 예배 시간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드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애?)

나눔4. 설교에서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첫 생각, 첫 말이 하루 전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아즈카라’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솔직히 요즘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나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만약 그것을 바꾼다면 하루가 어떻게 달라질 것 같나요?

(청소년용 나눔 :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야? “아, 짜증나, 더 자고 싶어”일까, 아니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립니다”일까? 아주 작은 ‘첫 시간’의 고백이 하루 전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아즈카라가 된대. 내일부터 딱 1분만 하나님께 먼저 말을 걸어보는 건 어때?)

나눔5.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향기가 없다”는 말처럼, 가족이나 교우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게 쑥스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얼마나 표현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후로 누구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청소년용 나눔 : 향수병 뚜껑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비싼 향수라도 냄새가 안 나지? 우리 마음도 표현하지 않으면 향기가 나지 않아.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배려하는 행동이 바로 아즈카라래. 최근에 내가 누군가에게 향기를 전했던 적이 있니?)

나눔6. 아즈카라가 왜 중요하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하셨다’는 표현은 곧 그를 위해 ‘행동하셨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깨달음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청소년용 나눔 : 오늘 아즈카라라는 말을 들었지? 어떤 뜻인지 확실히 알았어? 그런데 왜 이 ‘아즈카라’가 중요할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이래. 너희는 하나님께 바라는 것 많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을 들어주시기 위해 일하시려면 나를 기억하셔야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즈카라를 보고 기억하신데. 너희는 어떤 아즈카라를 드리고 있니?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원한다면 너희의 아즈카라는 무엇이어야 할까?)